

# '사춘기 자녀 성교육, 이것만 알자'

### 전북교육청, 학부모 성교육 프로그램 16~17일... 가정에서 바람직한 성교육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모로서 건강한 성의 의미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성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6~17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이 이뤄진다.

16일에는 유·초등생 학부모, 17일에는 중·고생 학부모로 나눠 자녀 연령대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김소영 성교육전문가가 참여한다.

또 16일 오후 7시에는 맞벌이 및 직장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학부모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 김소영씨가 강사로 나서 '사춘기 자녀 성교육, 이것만 알자'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사춘기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녀와 소통하는 사춘기 시기의 성교육 △10대들이 빠져 있는

성문화 및 실태 파악 등이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담당자는 "자녀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정에 따른 특성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장실에서 옛날 물건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 전주완산서초, 교장실에서 창의성 교육 '화제'

“교장선생님! 이 통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전주완산서초등학교 추영근 교장이 창의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화제다.



공모형 교장으로 부임한 추 교장은 예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사진)을 모아서 교장실에 전시해 두었다가 일주일에 한가지씩 창의성 자료로 현관앞에 전시한다. 일주일 동안 신기한 여러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학생들은 교장실 문을 열고 확인하러 들어온다.

추 교장은 “교실 한칸을 들여 박물관을 만들고 전시하면 아이들의 호기심이 잠시일뿐 오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며 “한가지씩 보여

주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교장실에서 그 물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면 요즘의 물건과도 비교해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 교육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권오석 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전북대학교 권오석 학생(화학공학부·학·석사 연계과정 3년)이 대통령과학장학생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해 세계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장학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재학생을 뽑았다.

이에 따라 권오석 학생은 한국전학재단으로부터 졸업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기당 25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5일 통합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대표 양관식)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비전대-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 '손잡다'

### 전기기술 인력 양성·공동 연구개발 활동 등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5일 통합멀티미디어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대표 양관식)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순직 총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및 전기과 오성근 김창현 임진택 교수와, 양관식 회장, 이재수 부회장 김은식 이사 이상건 협회운영기술원장, 김용희 운영위원, 이정현 사무국장 최재용 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첨단 전기 및 전력기술 관련 ▲

전기기술 인력 양성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활동 ▲최신 기술 정보 교류 ▲사회 봉사활동, 맞춤형 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첨단 제조 기술 관련 분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관식 대표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는 1100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각 회원사들은 제조기술의 다양한 분야로 분포돼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협회의 우수한 기업체에 채용돼 전라북도 전기 전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인재를 성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멘토 역할

을 특별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과는 긴 역사만큼이나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전기과 선배들이, 현재 전기 제조기술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후배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직 총장은 “강의와 현장실습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전주비전대학은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계적인 시류에 발맞춰 모든 교육과정에 AI, ICT, Rdot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며 “한국전기공사협회도 4차 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전주비전대학교와 공동 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홍 총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기에 대학의 어려운 취업환경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 채용에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60년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 21개의 시도회를 구성, 18,000여개 전기공사기업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등 다양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와 ICT 기술을 융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학교급식 식중독 대비 훈련

### 전북교육청, 전주양현중서...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역량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444정 주관으로 17일 오후 2시 전주양현중학교에서 운영되며 전북도청(건강안전과), 전주시청(환경위생과), 덕진구청(자원위생과), 전주시보건소(보건행정과), 도교육청(인성건강과), 전주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실제 발생 상황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식중독 발생초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으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통한 각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대규모 식

중독 발생시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식중독 접수·보고 △발생장소 현장출동 △현장조치 △검체채취 및 의뢰 △검체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원인조사결과 통보 △역학조사결과 최종보고 △최종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시 초기대응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상황 대비훈련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기관별 현장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